

남방큰돌고래 보호 규정 현장에선 ‘무용지물’

제주대학교 연구팀 ‘관광선박 운항 실태’ 조사 결과
300m 이내 엔진 정지·50m 접근금지 지침 위반 빈번
일부 선박에선 돌고래 의사소통 방해하는 수중소음도

제주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남방큰 돌고래 관광선박들이 돌고래 보호 를 위해 마련된 정부 지침을 준수 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나 왔다. 일부 선박은 돌고래의 휘슬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수중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드러났다.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 창수 박사 연구팀은 서귀포시 대정 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남방큰 돌고래 관광선박의 운항 실태와 수 중소음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11일간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이용해 모두 187회의

선박 통과 궤적과 471회의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2023년에 마련한 관광 선박 관람지침을 보면 관광선박은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입하 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며, 어떤 상 황에서도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 돌고래와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구팀 조사 결과 정부 지침에 담 긴 ‘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에 진 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한다’는 기

준이 모든 선박 유형에서 광범위하 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돌고래와 50m 이내로 접근 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 위반도 빈번했다. 관광활동을 병행한 여선 의 경우 돌고래 조우 사례의 15%가 50m 이내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근 접 접근율을 보였다. 소형 관광선 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약 4.2 %와 4.4%의 50m 이내 접근이 확인 됐다. 다만 중형 관광선에서는 조 사 기간 중 50m 이내 접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연구팀은 남방큰돌고래 의 주요 휘슬 주파수인 5.3~12.5 kHz와 겹치는 대역에서 선박소음 을 분석했다. 배경소음보다 3dB 높 은 경우를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 성이 있는 기준으로, 6dB 높은 경 우를 보다 뚜렷한 소음 증가 기준

으로 각각 설정했다. 그 결과 소형 관광선은 전체 돌고래 조우 사례의 93%에서 배경소음보다 3dB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44%에서는 6dB 이상 높았다. 대형 관광선은 3 dB 기준을 약 26%, 6dB 기준을 약 25% 초과했다.

문제는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단속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김창수 박사는 “특정 업체 한 곳의 위반이 아니라 관람지침을 만들고 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행정체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정만 만들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호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관광선박 운 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 리 기준 위반 사례와 개선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해 공개하겠 다”고 밝혔다.

박소정기자

“지방교부금 줄면 제주교육 직격탄”

제주교사노조, 어제 성명 통해 개편 중단 촉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 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제주 교육 계가 잇따라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제주교사노동조합도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조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는 전국 보통교부금 총 액의 1만분의 157(1.57%)을 정률로 받는다. 전국 총액이 줄어들면 제 주는 산정 기준을 다룰 통로 없이 정확히 같은 비율로 자동 삭감된 다”며 제주로선 교부금 개편의 충 격을 완화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 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정률 규정(제83조 제1항)으로 인해 타 시·도와 달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과정에서 학교 수, 도서·벽지 여건, 소규모학교 등의 수요를 산식에 반

영해 달라고 요구할 여지조차 없 다는 설명이다.

제주교사노조는 “지역 여건을 설 명할 기회도, 예외를 인정받을 규 정도, 이익을 제기할 창구도 없다. 제주에서 교부금 개편은 ‘산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총액의 문 제’”라며 기존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 제주 국 회의원을 향해서는 “제주특별법 제 83조가 만드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 면으로 제기하라”며 “제주는 총액 축소를 방어할 제도적 수단이 없는 지역이다. 이는 제주교육의 존립에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노인보호구역 상징색은 ‘형광녹색’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 구간서 시범운영

제주자치경찰단 전국 첫 도입

제주지역 노인보호구역이 ‘형광녹 색’으로 칠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 자인을 도입하는 ‘2026년 노인보호 구역 개선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 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140곳을 포함한 전국의 노인보호구 역은 표지판과 시작·종점 노면 표 시로만 구분될 뿐 노인 보호를 상 징하는 색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 지난해 제주 전체 보행 사망자 27명 가운데 노인이 77%(21명)를 차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운전자가 보호구 역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녹색을 입히기로 했다. 첫 시 범 구간은 어르신 보행 사고가 잦 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일원(중 정로 61번길 360m 구간) 노인보호 구역이다.

이달 중 제주도 공공디자인 심의 를 거쳐 9월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신주와 가로등, 신호등, 도로 이정표지 등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구분되는 형광녹색 돌출형 시트지를 부착한 다.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구간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막포장을 적 용한다.

자치경찰단은 시범 구간을 4~5 곳으로 더 늘려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한 뒤 전국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회원 재산권 지키는 생존책”
볼카노CC, 어제 입장문 발표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제주의 골프장 볼카노CC(구 레이 크힐스제주CC)가 기존 회원들의 대중제 전환 반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명하고 나섰다.

볼카노CC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본 회생계획은 1900여 명의 회원 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볼카노CC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에는 약 828억원의 입회보 증금채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 80%를 무담보 회사채로, 나머지 20 %를 골프장 할인쿠폰으로 지급하 는 변제 내용이 담겼다.

볼카노CC는 “전체 회원 1907명 중 대중제 전환 및 회생계획안에 반발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회원은 109명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례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인가 결 정에 대해 10% 미만의 소수 채권 자가 제기한 즉시항고로 회생계획 인가가 취소된 사례는 없다”고 설 명했다.

양유리기자



파도 밀려오는 대정해안도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앞바다에 집채만한 파도들이 밀려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노인 보행 사망자 증가… 5년간 67명 숨져

제주경찰청, 경로당 방문 교통사고 예방활동 실시

제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경찰이 보행 안전 홍보에 나섰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5년 (2021~202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는 총 108명이다. 이중 노인이 차지 하는 비율은 62%(67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명, 2022년 9

명, 2023년 10명, 2024년 20명, 2025 년 21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 주시 광령3리 경로당을 방문해 고 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안전활 동을 실시했다.

폭염 기간 노인들의 야외 활동이 이른 새벽이나 저녁·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운전자의 눈에 띄기 쉬 운 형광 가방과 반사띠가 부착된 지팡이 등도 전달했다.

지속되는 폭염 특보 속 어르신들 의 폭염 대응 상황도 더불어 살폈 다. 또 ▷도로 횡단 전 좌우 살피기 ▷횡단보도 이용하기 ▷야간·새벽 시간 밝은 색상의 옷이나 반사용품 착용하기 ▷차량 정차 확인하고 도 로 건너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대한민국 광복 81주년을 경축합니다.

THINKING ENERGY

JEJU

SK 三和石油株式会社

항상 제주 사랑을 실천하는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Tel. (064) 741 2131 Fax. (064) 741 2160 제주시 서광로 137 (용담이동)